

◆第25課 気持ちをつたえる－別れ－

제 25 과 감정을 전하다 -작별-

【한국어】

담임 : 모두 알고 있겠지만 에린은

오늘로 여러분들과 헤어집니다.

에린! 인사할래?

에린 : 여러분 반 년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.

처음에는 무척 불안했는데 모두 친절하게 해 줘서 즐거운 반 년이 었습니다.

여러 가지 공부, 수학여행,

그리고 축제. 추억을 많이 만들었습니다.

전 일본에서의 반 년을 절대로 안 잊겠습니다.

그러니까 여러분도,

저를 잊지 마세요.

사키 : 잊을 리가 없지! 그치?

친구들 : (응.) (열심히 해!) (물론이지.) (응, 그럼.)

(절대 안 잊을게.) (힘 내!) (열심히 해!)

에린 :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겠습니다.

그러니까, 그때까지 잠시동안의 “작별” 이에요.

